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유교적 관점*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 광 모

(송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 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을 고찰하였다.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과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유교의 기본관점을 검토하고, 내적가치기준으로 중(中)·화(和), 외적규범기준으로 의(義)·예(禮)의 덕목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의 지향적 덕목으로 인(仁)과 덕(德), 인식적 덕목으로 충서(忠恕)와 혈구지도(絜矩之道), 실천적 덕목으로 효(孝)와 예(禮) 등을 분석하여 이 덕목들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유교의 인식원리와 행위 실천덕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주제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유교의 인식원리, 유교의 행위덕목, 충서, 예

1. 서론

최근 지역공동체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여파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처하려는 다양한 복지관련 정책들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복지를 실현하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만큼 국가보다는 지역이 '사회통합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7310).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social integration)'과 '인간복지(human welfare)'의 이념 실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지역사회의 자원과 욕구가 연결되고, 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조직화되는 것만으로 지역공동체 구축과 우리의 기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와 자율의 규범이 존재하고, 공동체적 연대감과 호혜적인 믿음, 그리고 추구하는 신념과 규범이 공유될 때 지역공동체의 복지실현은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곧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에 사회자본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지역공동체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최근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 호혜, 신뢰, 규범 등 사회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한 사회의 역사적 이념과 윤리,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당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자들이 자신들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물에 근거하여 한국의 사회자본이 진단·평가되고, 대안이 도출되는 등 일반화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는 긴 시간동안 진화되어 온 결과이며, 사회 자본은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획득·교환·계승되는 무형의 자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유교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이 녹아있고, 우리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논의 역시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러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밟은 이후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어떤 유교사회의 사회자본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겠느냐는 전통 사회자본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유교적 사회자본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사회자본과는 그 성격이 너무 달라 그 가치의 유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서구의 자본주의적 가치가 전 세계적 보편가치로 통용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양적 가치는 결코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동양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자체를 기피하게끔 만드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란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결코 전통적 사회자본의 지역사회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자본주의의 물질적 가치가 초래하는 부정적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원한다면, 그 대안은 '물질'이 아닌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관점의 공동체 정신에서부터 찾아야 함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유교의 세계인식원리와 실천적 행위덕목들이 어떻게 유교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기능했으며, 현대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는 어떠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1) 자치와 자율 중심의 지역공동체는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보완은 물론, 공간적 소속감을 잃고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모두 경험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관심과 기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 자본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유교의 세계인식원리를 음·양(陰·陽)과 시·위(時·位)의 대대(對待) 논리에 기초하여 정리한다. 다음은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원리로서 제시되는 차원별 덕목들, 즉, 공동체 지향차원의 덕목(仁·德), 인식차원의 덕목(忠恕·絜矩之道·和), 그리고 행위차원의 덕목(孝·禮)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어떻게 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기능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구축을 가능하게 했던 유교의 세계인식원리와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기능했던 유교의 실천적 행위덕목들이 과연 현대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회자본형성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1)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한 연구 경향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추세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대응전략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이광모, 2010). 이는 실제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사회통합의 이념과 대상자 중심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며, 지역은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택룡 외, 2007). 지역공동체 연구 중에서도 특히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관 등 복지조직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논한 연구(이영철, 1998; 류승일, 2011),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이인재, 2005; 원영희, 2007), 그리고 지역복지공동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의 과제와 다자간 협력이론을 적용한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논한 연구(오정수, 2000; 강창현, 2005) 등이 있으며,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복지마을만들기의 가능성을 논한 연구(박종민, 2012)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지역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연구에는 빠짐없이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의 공통점은 사회자본의 형성 없이는 지역공동체 구축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김남선·김만희, 2000; 강용배, 2003; 김우근, 2010; 박종관, 2010; 광현근, 2013). 지역공동체 구축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자본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연대의식, 사회통합정신, 상호신뢰, 공동체정신, 인본주의 정신 등 그 지역에 형성된 무형의 자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김기원, 2002: 66).

물론 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공동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요소가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이종수, 2009: 8-9). 최근에는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작동기제를 사회적 가치와 규범질서 속으로 재정립시켜서 경제와 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균형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 때문이다(장원봉, 2007; 정규호, 2008; 주성수, 2007). 그러므로 지역복지 연구에서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을 추구하는 대안적 통치체제로서 거버넌스 대응 전략은 의미가 있다. Rhodes(1997)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네트워크를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사용하며, Kooiman(1994)은 거버넌스란 다수의 조직간 파트너십, 자율적 네트워크로서 모든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일정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공·사간 파트너십에 의한 복지 연계망 구축은 물론 정부, 시장,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역복지조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로 나타난다.

2)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 경향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은 1980년대 이후 연구 목적과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회 자본은 공동체사회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부단히 형성되고 축적되는 문화적 역사성을 지니며, 인간의 모든 제 활동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핵심 명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이 관계는 곧 참여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과 호혜적 신뢰, 그리고 공유된 규범과 가치 등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광모, 2010).

공동체와 사회자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론 공동체는 매우 신축적인 개념이어서 목표나 규범, 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자족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를 지역사회로 해석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생태학적으로 특정 종(種)이 특정 장소에 모여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관통하는 개념적 요소는 공동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이종수, 2009: 7). 현대에서 논의되는 공동체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지역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2) 사회자본 개념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Bourdieu(1986: 248)는 '상호 면식을 가진 제도화된 관계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Baker(1990)는 '어떤 특정한 사회 구조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 Burt(1992: 9)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 동료 및 일반적 접촉을 통하여 기회를 획득하고, 이를 재정 및 인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Coleman(1988)은 '의무, 기대와 신용, 정보통로, 규범과 효과적인 체제', 그리고 Putnam(1995: 67)은 '상호 혜택을 위한 조정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 영역별 연구에서 사회학에서는 사회자본이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권력과 자원을 획득하게 하는 일련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설명하며,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 민주적 발전, 참여 등과 연결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학문분야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다.

를 전제로 하며, 지역복지공동체는 주로 동네 단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김수중 외, 2002; 광주YMCA, 2006; 이종수, 2007; 이희경, 2012). 한편, 사회 자본은 개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사회적 관계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관계적 속성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관계는 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³⁾ 지역발전은 단순한 집적을 넘어서 높은 밀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즉,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다양한 기관(조직)간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직간 경쟁과 협력을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 문화, 분위기, 신뢰 등 사회자본 형성 정도가 공동체 발전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사회 자본은 지역의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각 복지주체간의 능동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며, 구성원들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비대칭 정보로 인한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고 신뢰감을 높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 자본은 일체감을 높여서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자율적 규범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 자본은 스스로 강화되고 축적되는 경향성 때문에 공동체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며(Putnam, 2000; 이준영, 2007: 7에서 재인용), 관계 통로인 네트워크는 참여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계형성은 명시적 거래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내 행위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내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에 내재된 사회자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⁵⁾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⁶⁾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회 자본이 한층 더 강조된다.⁷⁾ 그리고 대부분 사회 자본 연구가 지역복지 중

- 3) 사회적 자본은 신뢰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재의 특성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성만 되면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도덕적 자원의 특성이 있다. 이처럼 공동체와 사회자본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 4) Portes(1998)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교환과는 두 관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우선은 보상받을 때의 가치는 그것이 발생한 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언제 보상받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상받는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자본보다는 경제적 시장 교환으로 정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 5) Coleman(1988)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간의 긴밀한 관계들은 스스로 규범을 강화하고 신뢰를 촉진함으로써 수월하게 공유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Burt(1992; 2001)는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데 관심을 둔다. Lin(2000)도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자본은 특정 목적 행위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내재된 자원들로 보고 있다. 결국 사회자본은 구조 내재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실제 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6) 한국 사회자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 능력,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자본이 강조되기도 하며(박희봉, 2009),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의와 관련시키거나(최문형, 2002; 박세일, 2008), 또는 사회적 형평성과 빈곤 문제를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한상미(2007b)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써의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찾고 있다.

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최근 사회복지 제도들이 지역사회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자본 이론은 아직 학문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사회자본 구성요소들로는 구조적 차원의 네트워크와 참여, 관계적 차원의 신뢰와 호혜,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 공유된 신념과 규범 등이 사용된다(한상미, 2007a). Uphoff(1999)는 사회자본의 내용에 따라 구성요소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구조적 차원의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인 네트워크처럼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인지적 차원의 사회 자본은 네트워크 내의 공유 가치나 태도, 공동의 신념, 그리고 신뢰나 규범 등 매우 주관적이고 관찰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한편, Nahapiet와 Ghoshal(1998)은 세 차원으로 사회자본을 설명한다. '구조적 차원'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내 관계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손쉽게 정보와 자원에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⁸⁾ '관계적 차원'은 신뢰가 핵심개념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지식의 공유와 교환, 그리고 지식이전의 역할을 한다.⁹⁾ 끝으로 '인지적 차원'의 핵심개념은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공유된 신념과 규범으로 이를 통하여 구성원 공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¹⁰⁾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7)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사회자본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최중혁 외(2010)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연구를 수행하였고, 한상미(2007a; 2007b)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등을 연구하였으며, 홍현미라(2005)는 지역 변화대응전략으로서의 자원개발 과정을 사회자본의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지은구(2006)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의 방안으로 사회자본 활용을 주장하였고, 정연택(2003)은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실천의 접점으로써 사회자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춘식(2007)은 사회자본이 마을수준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홍경준(2001; 2004)은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탐색하면서 한국의 사회자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8) 구조적 차원의 사회자본 핵심 구성요소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구조화된 조직적 참여는 물론 상호작용, 연계, 교류 등 비구조적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네트워크는 구조의 속성이 공식 대 비공식, 수평 대 수직, 개방 대 폐쇄 중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 구분이 가능하며,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만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가 가능해진다.
- 9) 관계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신뢰'이다. 보통 신뢰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Lewicki and Bunker, 1996). 신뢰를 어길 경우보다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서 신뢰를 지키게 되는 '타산적 신뢰' 단계, 상호교류의 증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상대방을 믿게 되는 '지식의 신뢰' 단계, 그리고 서로의 목표와 가치가 일치하여 믿게 되는 '동일화 신뢰' 단계가 그것이다(안우환, 2005). 만약 세 번째 단계까지 신뢰가 축적된다면, 개인은 공동체의 규범과 기대 가치를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 10)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규범은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신뢰 있는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서 개인의 이기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의 신념과 규범체계는 서로 간의 생각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수단이 되며, 특히 경험을 공유한 집단은 보다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유했을 수 있게 된다.

위에서 검토한 지역공동체 구축 및 사회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전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의 역사는 지역공동체에 기초해서 이해되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도외시한 채 전혀 새로운 그 지역의 공동체 사회 자본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천방법으로서 우리의 오랜 역사적 전통인 유교 관점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화에는 어떤 행위나 사물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김정수, 2006: 40). 사회 자본은 오랜 시간 속에서 문화로 습득되어 체화되기 때문에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집합체인 사회 자본은 변화에 순응하며 함께 변화한다. 그러나 의식의 원형만은 고유성을 간직한 채 세대간 전이를 통해 지속되어 가는 속성이 있다. 조선시대 농업 사회에서 요구되던 유교적 사회자본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지향성, 그리고 실천적 요소는 변함없는 하나의 인식원리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작동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¹¹⁾

한국 사회자본의 실체에 관한 연구에서 박희봉(2009: 21-25)은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인간관계와 협소한 공동체문화 때문에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의 사회자본 형성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사회 자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역사적 시대 배경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서구의 합리적 관점과 현대 시점의 기준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뿌리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조직적 맥락에 연유하고 있으며, 역사와 함께 현재의 문화 속에 내재된 의식의 집합체로 존재하고 있다(이광모, 2010).¹²⁾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변화의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사회 자본 연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있는 사회 자본을 찾아내어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 승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서구적 관점의 사회 자본 이론의 일반화 추세를 경계하면서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자본 형성 논리와 실천적 내용은 우리의 전통적 문화를 형성한 유교적 관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사회 자본이 일상의 윤리와 당위의 지배를 받으며, 역사·문화적 맥락에 강

11) 조선기의 사회 자본은 특정 지역사회에 국한된 매우 협소한 사회 자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신뢰감과 밀착된 네트워크, 그리고 마을 전통의 규범이 가능할 수 있었다. 마을에 형성된 규범은 권위적인 힘을 부여받고 있었고, 절실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신뢰의 정도는 매우 높았으며, 끈끈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 사회자본은 해방 이후 갑자기 도입된 현대 자본주의 발전모델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으로의 집권성과 획일성이 강조되면서 유교에 기초했던 전통적 지역공동체 모습은 변질되고, 호혜성에 기초한 마을 단위의 신뢰와 규범질서는 약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2) 유교적 관점에서 사회 자본을 언급한 연구로는 이광모(2010)의 “조선기 향촌사회 복지공동체의 사회자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조선기에 존재했던 향도, 두레, 계, 향약 등 지역공동체 조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유교의 인식원리에 근거한 공동체 사회자본의 구체적 덕목(요소)들을 상세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게 구축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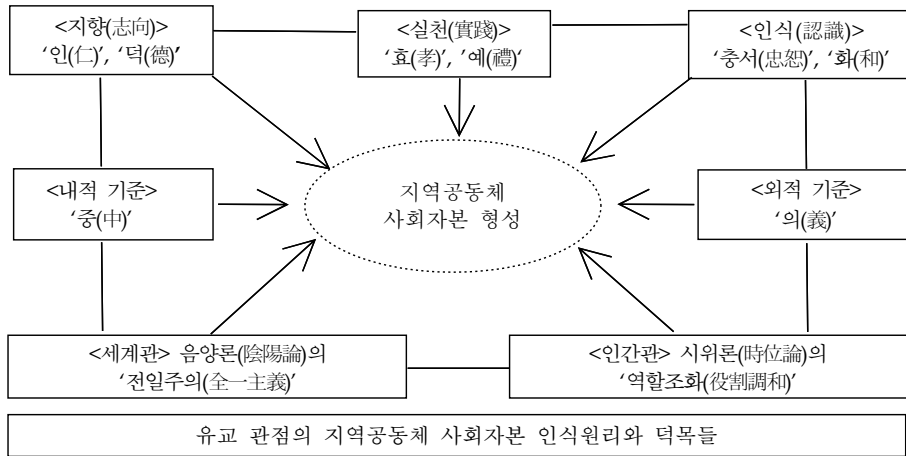
1) 연구 범위와 방법

유교전통의 세계인식원리와 실천적 행위 덕목들이 현대 지역공동체 구축에서 요구되는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교의 세계 인식원리인 음양론(陰陽論)과 시위론(時位論)의 의미해석과 관계구조를 검토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지녀야 할 내적 가치기준과 외적 규범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인(仁)’·‘덕(德)’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 간 바람직한 관계성을 인식하게 하는 ‘충서(忠恕)’·‘혈구지도(絜矩之道)’·‘화(和)’의 내용,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행위인 ‘효(孝)’·‘예(禮)’의 덕목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교적 관점의 덕목들이 어떻게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내용들은 현대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에 실천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좀 더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의 연구이다. 동시에 우리의 전통적 사상의 근원인 유교의 고전을 통하여 현대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처방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주체와 관련된 각종 저서와 선행 연구논문 등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이론적 고찰에 중심을 둔 문헌연구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2) 연구 모형

연구의 주제가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유교관점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기되는 연구 문제로 유교가 지향한 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의 기본 인식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구성원이 공유했던 내·외적 가치와 규범의 기준 및 내용은 어떠한가. 유교공동체가 지향했던 인·덕의 덕목과 효·예의 실천 덕목, 그리고 충서·혈구지도·화의 인식적 덕목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실제 유교의 관점이 현대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4. 유교적 관점이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함의

1) 유교의 세계인식원리가 주는 시사점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은 유가의 대대·변역의 인식원리에 따른 세계관과 인간관에 잘 나타나 있다. 유가에서는 공동체의 삶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상호불신의 원천이 되어 온갖 갈등문제를 야기하는 궁극적 원인이 됨을 인식하고 정체의 정합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³⁾

유교의 세계인식원리는 음양론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 시위론에 기초한 역할 조화의 인간관, 그리고 내적가치·외적규범을 행위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음·양'은 서로가 전체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 둘이 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가운데 '시·위'에 적합한 역할 조화의 인간됨을 추구한다. 즉, 어떻게 음양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하여 가장 적당한 시간과 위치를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켜야할 내적가치와 외적 규범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13) 지역공동체라는 한 덩어리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서로 마주보는 '대대(對待)'의 한 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 '네가 있어 내가 있으며, 네가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대응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변역(變易)'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주어진 자신의 처지나 입장만을 항구불변으로 여기거나 고집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다.

(1) 음양론(陰陽論)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

서양이 합리성에 기초한 분석적이고 환원론적 세계관을 중시해 왔다면, 동양은 유기체적 전일주의(全一主義) 세계관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세계관은 매우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분석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일관된 인식 틀을 갖게 되며, 이 틀을 통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동양의 가장 근본적 사고는 음(陰)과 양(陽)의 상반된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이광모, 2006: 37). 음양의 덕이 합치됨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음을 뜻한다. 음양뿐만 아니라 강유(剛柔), 동정(動靜), 건순(健順), 기우(奇偶), 대소(大小), 진퇴(進退), 왕래(往來) 등은 상호 대응되고 전환되는 것들을 합일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들이다.¹⁴⁾ 이 상반되는 모든 것들은 서로 감응(感應)한다. 하늘의 도(道)인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인간의 도인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감응하고, 인간은 땅과 하늘의 세계와 주체적으로 교감하는 능동적 존재이다(장순희·이광모, 2005: 106-107). 이러한 음양간 상호감응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공동체는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존재가치나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확고히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을 고집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이웃의 존재나 특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공동체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구축을 논함에 있어서 나와 이웃이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교의 유기체적 전일주의 세계관이 요구된다.¹⁵⁾

음양론에 기초한 전일주의 세계관은 결과적으로 유교공동체의 이념적 원리인 동시에 사회 자본의 형성원리를 제시해 준다. 음양론에서 음(陰)과 양(陽)은 각기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존하여 존재하고 작용하는 반쪽 존재이다. 어느 한 쪽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일정한 시간(時)과 공간(空)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괴리현상은 극복된다. 이러한 음양간 상반상성(相半相成)의 합일(合一) 관점은 서로 다른 객체가 상호관계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각기 존재하는 객체들이지만 전체로서는 하나라는 전일주의 관점은 공동체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논리를 제공해 준다. 즉,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구조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생성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질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음양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자와 부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아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등등 음양간 대조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

14) 『주역』에서 대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괘명(卦名)을 살펴보면, '건(乾)/곤(坤)', '태(泰)/비(否)', '손(損)/익(益)', '기제(既濟)/미제(未濟)' 등으로 이들 괘는 모두 64괘의 배열 순서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다. 이 외에 『역경』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들도 대대로 표현되고 있다. '대인(大人)/소인(小人)', '부(夫)/부(婦)', '장부(丈夫)/소인(小人)' 등이 그것이며, '길(吉)/흉(凶)', '득(得)/상(喪)', '리(利)/불리(不利)' 등도 대대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라 하겠다(이광모, 2006).

15) 유교의 전일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은 인간중심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종합적 유기체로 파악되며, 가치중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치선택의 관점으로 파악된다.

나의 일체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비록 상호작용의 강도나 빈도, 그리고 정도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상호관계에 따라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2)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의 인간관

유교에서 시위론(時位論)은 음양 간의 관계와 변화를 설명하는 좌표로서 어떻게 음양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하여 가장 적당한 시간(時)과 위치(位)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이광모, 2009: 267).

주역 괘(卦)를 해석할 때에도 이 시위(時位)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인간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하는지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위(位)가 비록 중정(中正)의 자리를 얻었더라도, 전체의 시(時)에 맞지 않거나 다른 효와의 관계에 따라 흉(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역할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¹⁶⁾ 맹자(孟子)는 인간의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인륜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¹⁷⁾

이처럼 유교의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조화(役割調和)의 인간관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현재'라는 시점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화목과 조화 유지를 위한 공동체의 전제는 구성원들이 서로 친애(親愛)하고, 나와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동체에서의 자기희생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현대 지역사회에서 물질, 인적자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유교에서는 타인에게는 관대(寬大)와 자애(慈愛)를 베풀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엄격한 윤리적 규범을 보일 때, 신뢰가 형성되며 동시에 부드러운 관계망이 유지되어 규범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유교의 시위론(時位論)에 기초한 역할 조화의 원리는 공동체구성원의 개인윤리로서 사회자본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3) 내적가치와 외적규범의 기준

유교에서의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반성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수기(修己)하면서 혈구지도(絜矩之道)를 실천하고자 한다.¹⁸⁾ 성찰적 존재인 인간은 천인합일의 관점에

16) 유교에서 자연과 인간이 상응(相應)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기(氣)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본다는 의미이다(송복, 2003). 지역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곧 공동체의 주체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여 당연히 주체와 객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도덕적·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17) 人之柔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孟子』, 『盡心』上, 4章.

18) 유교의 사회윤리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지향하고, '혈구지도(絜矩之道)'의 실천 방법을 따른다(이영찬, 2001: 354). 수기안인은 자기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케 해 주는 것이고, 혈구지도는

서 주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며, 무엇이 옳은가'라는 내적가치와 외적규범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이영찬, 2001; 이광모, 2011: 216-217).

① 내적 가치 기준: '중(中)'·'화(和)'

유교에서 인간의 최고 가치실현은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곧 하늘의 도(天道)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도를 이루려면 '중(中)'과 '화(和)'의 가치가 요구된다. '중'은 아직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화'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났으나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무엇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중'과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서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의 '화'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편견도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중·화는 인간의 바람직한 내적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화'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본성을 깨우쳐 일치시켜 줌으로써 성숙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공동체 구축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¹⁹⁾ 또한 중·화는 인간의 상호 관계적 행위에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나설 때와 그칠 때를 알기 위해서도 자기수양을 통해 이를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외적 규범 기준: '의(義)'·'예(禮)'

유교에서는 '의(義)'·'예(禮)'가 행위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의(義)'란 이치를 잘 따져서 전후좌우의 사리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때에 꼭 맞으면 '시중(時中)'이 되고, 때에 적합하면 '시의(時宜)'가 된다. 그러나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욕심이 생기게 되면,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²⁰⁾ 의는 자신의 선입견, 편견, 아집 등에 집착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 그 상황에 꼭 맞는 마땅한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규범적 원리이다. 공동체적 삶에서 사리사욕에 따른 집착과 고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가장 시의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실성 있는 해결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예(禮)'는 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식과 절차를 말한다. 즉, 예는 주어진 상황에서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정한 격식(格式)인 셈이다.²¹⁾ 그래서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 것이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으로 자기반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다. 나의 도덕적 양심을 닦아서 그것을 척도로 타인을 대하고, 이것이 전 사회, 전 인류에게로 퍼져나갈 때 평천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 희로애락의 情이 發하지 않은 것이 中이고,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이른다. 中이란 천하의 근본이요, 和는 천하의 공통된 道이다. 그러므로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편안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 1章(성백효, 1992a).
- 20) 군자는 일을 함에 있어서 주장함이 없고, 주장하지 않는 것도 없이 오로지 의만 따를 뿐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論語』, 『里仁』, 10章(유정기, 1985: 58).
- 21)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욕망의 존재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을 옹호하지도 않는다. 만약 사람들에게 공손, 절제, 용감, 강직 등의 덕만 있고 절차와 격식을 갖춘 예가 없다면 수고로움, 두려움, 혼란, 조급함으로 치우치게 됨을 경계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공손하지만 예가

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다.²²⁾ 이처럼 예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는 기제로서의 의미와 인간본성을 표현하는 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홍승표, 1999: 106).

2) 유교의 공동체 실천 덕목

(1) 공동체의 지향(志向): ‘인(仁)’·‘덕(德)’

① 인(仁)

‘인(仁)’의 의미와 내용은 매우 넓고도 커서 정리하기 쉽지 않으나, 공동체 덕목으로서 인이 지향하는 특징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인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점차 친인척→이웃→사회→국가라는 범위의 공동체적 관계로 나아간다. 둘째, 특별한 사람만이 인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인이다. 셋째, 복지실천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약자를 돌봄이 인이며, 친구와 동료를 신뢰하는 것이 인이다. 또한 각자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에 정성을 다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지역공동체가 휴먼서비스를 추구하듯이 유교에서의 ‘인(仁)’은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모습과 특성, 그리고 복잡다기한 존재로 보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 드러내고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仁)은 몇 가지 특성으로 국한하여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 덕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論語)에서 언급되는 仁의 특성은 공동체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인의 방법인 수기(修己), 효제(孝弟)의 덕목은 공동체의 사회자본적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덕(德)

유교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중요한 덕목이 ‘덕(德)’이다.²⁴⁾ 덕은 사람을 품어 안아 돌보는 것을 의

없으면 수고롭게 되고, 삼가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며,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고, 강직하나 예가 없으면 조급하게 된다. ‘子曰,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論語』, 『泰伯』, 2章(성백효 역, 1993).

22)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論語』, 『里仁』, 10章.

23) 인(仁)을 이루는 방법으로 수기(修己)와 효제(孝悌)가 있다. 수기란 나를 닦는 것이고, 효제는 형제간 본성적인 사랑을 말한다. 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곧 늘 자기성찰(自己省察)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반성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정작 자신의 모습은 관찰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은 가차 없이 비판하는 것이 현대인 모습이기도 하다. 형제간의 사랑은 본성적이고 천부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누구나 형제간 우애를 마음속에 간직하고는 있지만 실제 잘 행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기를 통해 천부적인 효제가 행하여져서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정성과 돌봄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속의 효제가 실제적인 효제가 되게 하는 것이 곧 인을 행하는 본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수기, 효제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사회, 국가로 인의 본성을 넓혀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4) 논어에 덕을 논한 장은 30여장이 된다. 논어에서 논하는 덕의 의미는 너그러움, 후한인정, 교화, 선행, 사욕의 억제, 공익추구, 이웃사랑, 시혜, 중용, 수기, 양보, 성찰, 효행, 향심, 실천궁행, 인간중심,

미한다. 대학(大學)에서는 덕을 명덕(明德)이라 하는데 주관에 사로잡혀 사욕을 갖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때 이르는 말이다. 또한 덕은 5常(仁義禮智信)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덕은 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계차원에서 덕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을 뜻한다. 공동체가 성립하고 유지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가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덕은 공동체가 공유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며, 정성으로 도를 실천하는 행위이고,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교에서 지향하는 '덕(德)'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인격적 양태로서 사심 없는 관대한 마음을 일컫는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덕을 지향할 때 공동체의 목표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능 수행의 사회자본 기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덕을 지향하는 사람은 공평의 가치와 태도를 지닐 것이므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 공동체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덕을 지닌 공동체 지도자는 관대하고 공평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동체에 대한 인식(認識): '충서(忠恕)'·'혈구지도(絜矩之道)'·'화(和)'

① 충서(忠恕)

'시위(時位)', '대대(對待)'의 인식원리는 『주역(周易)』의 '대대(對待)'·'변역(變易)' 논리에 이어 『논어(論語)』에서도 이어진다.²⁵⁾ 충서란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음(己所不欲, 勿施於人)'의 덕목이다(남상호, 2001: 59). 충(忠)이 도덕적 자각이라면, 서(恕)는 자신의 도덕적 자각을 확충하여 공동체에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충과 서는 개인의 자아 확립과 이를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려는 태도이다.²⁶⁾ 결국 충서는 수신(修身)의 방법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방식으로 사회관계에서 인격적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공손과 관용의 유대관계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베픔, 역할수행, 지행합일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덕은 중화(中和)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사심없는 행위를 지향하며(無私心),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時中) 곧 사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동체내 신뢰의 사회자본을 형성함에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덕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너그럽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게 하며, 이웃에 공손하고 신의를 가지며, 베픔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요구한다.

25) 공자가 말한 '어진 자는 내가 이루고자할 때 남을 이루게 하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을 때 남을 도달케 해 준다(夫人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論語』, 雍也)'는 '인(仁)'과도 상통한다.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推己及人)'는 것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로서 '내가 하고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子貢 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基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衛靈公)'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26) 충과 서는 도에서 벗어남이 멀지 아니하니 자기에게 베픔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면 또한 남에게 베픔이 아니한다 '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中庸』(성백효 역, 1992a).

② 혈구지도(絜矩之道)²⁷⁾

혈구지도는 인간이 인간을 헤아리는 방법을 법칙화한 행위 준칙이라 할 수 있다(김진근, 1996: 162).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행동하는 행위의 방법과 준칙이 혈구지도인 것이다. ‘헤아림’은 내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곧 행위의 준칙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다는 의미이다(고재욱 외, 2003: 20).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혈구지도야말로 유가의 통치방법이고 행위준칙인 동시에 달성해야 할 이념적 덕목이다.

③ 화(和)

유교에서의 ‘화(和)’는 조화로움(調和)이다.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가 곧 ‘인(仁)’을 행하는 것이라며, 화하는 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²⁸⁾ 이것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 곧 전체와 ‘화(和)’하는 ‘예(禮)’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욕심으로부터 연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화(和)’의 전형이 발견된다.²⁹⁾ 개인윤리가 잘 확립되면 공동체윤리는 쉽게 확립될 수 있으며, 대동사회(大同社會)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³⁰⁾ 따라서 대동사회의 구현을 위한 복지공동체 구성원의 윤리적 성찰이 전제될 때 상호의존 관계의 연결망 속에 신뢰와 규범 등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체에서의 행위(行爲): ‘효(孝)’ · ‘예(禮)’

① 효(孝)

유교공동체의 이념적 기반은 도덕적 인륜(人倫)에 있다. 부모 공경을 중심으로 하는 효는 유가윤리의 근본 덕목이다.³¹⁾ 부모를 섬기는 까닭은 자신의 신체를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먼

27) 위에서 싫어하는 바로써 아래를 부리지 말며, 아래서 싫어하는 것으로 위를 섬기지 말며, 앞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뒤에 하지 말 것이며, 뒤에 싫어하는 것으로 앞에 따라가지 말며, 오른쪽이 싫어하는 것으로 왼쪽에 건네지 말며, 왼쪽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건네지 말 것이며, 이러한 것을 ‘혈구지도’라 한다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也’, 『大學』, 治國平天下(성백효 역, 1992b).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며, 예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며,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論語』, 顏淵(유정기, 1985: 90).

29) 예의 쓰임에는 화가 가장 고귀하며, 선왕들의 통치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서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論語』, 學而(유정기, 1985: 49): 화(和)는 천하로 하여금 최고의 조화를 이루게 하며, 하늘과 땅을 제 자리에 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는 것이다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中庸』, 天人(성백효 역, 1992a).

30) 대동사회란 인의 실현을 통하여 만인이 평등하고 다툼과 분쟁이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동사회는 유교 공동체의 이념적 원리들이 추구하는 당위적이며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조상까지 이어져 마침내 만물을 낳은 천지를 섬기는 이유가 된다. 효도가 경천(敬天)사상과 결합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자는 “효와 제는 인을 하는 근본이다”³²⁾라고 하여 인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라는 가족적 도덕규범을 제시했던 것이다.³³⁾

유교에서 ‘효(孝)’가 모든 사회적 관계행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특별히 실천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임동석, 2009). 효란 ‘부모 섬김’인데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행위적 측면에서 가장 큰 섬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尊親), 다음 섬김은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不辱), 마지막 섬김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能養)이다.³⁴⁾ 이렇게 보면 물질적 부모부양은 가장 낮은 수준의 효 행위이며, 가난해도 정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효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 생애주기에 따라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때(時期)에 따라 마음을 다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효의 기본으로 보았다.³⁵⁾ 즉, 부모가 젊고 기력이 있을 때는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늙어 기력이 없을 때는 마음을 다해 즐거움을 주고, 병이 나면 마음을 다해 근심하고, 죽으면 마음을 다해 슬퍼하고, 제사 때는 마음을 다해 엄숙히 하는 것을 효로 보았던 것이다. 셋째,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하나 동료에 교만하지 않고, 밑에 있어도 상사나 동료에 거슬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과 있어도 다투지 않는 것을 효로 보았다.

결국, 효는 가족 내에서는 물론 가족 밖의 공동체 생활에서의 관계적 행위가 확대되어간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에서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반항하거나 난잡하지 않으며, 남과 싸우지 않는 것을 효로 보았던 하였다. 이렇듯이 구체적 실천행위인 효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효는 시간 중첩적이면서도 세대 중첩적인 행위로써 가족 바깥의 이웃 공동체 사회로 연장되고 확대되어간다는 점이다.

② 예(禮)

예(禮)는 제(齊)의 수단이며, 인(仁)을 행하는 형식(形式)으로 볼 수 있다.(이영찬, 2001: 376-379). 그러므로 교화의 내용이 예의 형식에 위배된다면 이는 덕화(德化)라 할 수 없게 된다. 덕화가 군자

31) 효의 미덕은 유교의 가족주의(家族主義) 관념을 강화시킨다. 유교공동체에서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으로 개인이 수신(修身)하는 기반이다. 가정에서의 사적 생활은 공동체적 성격이 박탈된 삶이 아니다. 유가적 전통에서의 가정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德性)을 수련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이진우, 1999: 324-325). 맹자는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 윤리인 오륜(五倫) 중 세 가지(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씩이나 가족윤리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공동체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孝弟也者 爲仁之本與, 『論語』, 學而.

33) 이 가족윤리는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지역과 국가로 확장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드물다(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論語』, ‘學而’)라는 말에서도 효의 가족 관계 규범이 사회적 상하관계 규범으로 확장되고, 이것은 또 장유유서(長幼有序), 경로(敬老)사상 등 사회윤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충(忠)으로 확대되어 결국 가족의 ‘효’가 국가에 대한 ‘충’의 원천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김장태, 2000: 141).

34) 가장 큰 효는 부모공경이고, 그 다음이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다 ‘大孝尊親 其次不辱 其下能養’, 『禮記』(이상옥, 2003).

35)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其親, 『孝經』, 紀孝行章.

(君子)의 솔선수범을 통한 교화(教化)에 의존한다면, 예치(禮治)는 인간의 행위를 절제하고 격식화(節文)하는 외재적 절차에 의해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에는 예의 규범적 본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³⁶⁾ 예의 본질은 욕망을 절제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인간의 욕망이 도덕적 본성을 가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온갖 악행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에 예는 인간의 욕망에 일정한 격식을 부과함으로써 욕망을 절제하고 절도 있게 행동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권오돈, 1990). 그렇다면, 예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가치(價値)와 규범(規範)의 총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형식(形式)과 절차(節次)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예(禮)'의 본질과 기본요소를 분석해 본다. 사회변화와 함께 새로운 규범들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남은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가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의 예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는 수사학적(修辭學的) 접근방법을 취할 때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본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잘 조화된 개인의 행동은 공동체에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³⁷⁾ 근원적으로 예(禮)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부정하거나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행위규범이 아니다. 예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쌍무적이고 호혜적이며, 협동적인 행위규범인 것이다. 수사학적 측면에서의 예는 가정으로부터 마을공동체를 걸쳐 국가사회로 확대되어가는 것이며, 내면적 수련(修己)을 통해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실천행위가 곧 예의 본질이다. 수사학적인 예는 가례적인 예와는 달리 인간자율과 인간존엄을 추구하는 예이며,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예로써 '조화(調和)'를 기본 요소로 삼는다.

결국 예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회관계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화(和)를 지향하여 결국 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예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매우 중요한 사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공동체란 부분들이 상호적응하고 협동하는 상호의존의 유기체임을 인정할 때, '예'는 개방적이고 조금은 느슨한 공동체 네트워크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규범질서와 기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덕목이다.

36) 人生而靜，天之性也。感於物而動，性之欲也。物至知知，然後好樂形焉。好樂無節於內，知誘於外，不能反躬，天理滅矣。未物之感人，無窮，而人之好樂無節，則是物至而人化物也。人化物也者，滅天理而窮人欲者也。於是，有悖逆詐僞之心，有淫泆作亂之事。是故，強者脅弱，衆者暴寡，知者詐愚，勇者苦怯，疾病不養，老幼孤獨，不得其所，此大亂之道也。是故，先王之制禮樂，人爲之節。『禮記』。

37) 조선시대의 예는 주자학적(朱子家禮) 예로서 가(家)라는 좁은 울안에 갇혀버린 사례(私禮)로만 기능하였다. 그 결과 형식적이고 경직적이며 강압적인 예가 되어버렸다. 즉,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사회적 공례(公禮)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형식위주로 인간행위를 규제하는 예로서만 기능했던 것이다.

5. 결론: 시사점

급격한 복지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단위별 복지공동체 구축이 지역복지문제 해결에 대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 자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과정에는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자본은 지역의 역사적 이념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적 당위의 지배를 받으며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문화적 경험에 기반한 유교적 관점의 공동체 사회자본 연구는 그만큼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교적 세계인식원리가 주는 시사점이다. 연구에서 유교가 지향한 공동체는 시위(時位)와 대대(對待)의 세계인식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교가 지향한 궁극의 목표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 행위덕목들은 사회자본형성의 구체적 실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즉, 유교의 전일주의 세계인식원리는 공동체란 곧 '너와 내가 한 덩어리로 구조화된 관계'임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구성원 간에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원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대'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근거와 관계 형성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인식원리이며, '시위'에 적합한 실천적 행위덕목들은 공동체의 상호 관계적 행위에 있어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게 하는 내적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며,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하는 절차와 기준을 제공해 준다.

둘째, 공동체 지향(志向)의 덕목이 주는 시사점이다. 인(仁)은 공동체적 관계가 어떻게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수기(修己)와 효제(孝悌)는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며, 결국 가정이 공동체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에게 있어서 덕(德)은 사심이 없는 태도와 관대한 마음이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자극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유교적 인식(認識)차원의 덕목이 주는 시사점이다. '충서(忠恕)'는 공동체에서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방식이 아니라, 입장 바꿔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용의 긍정적 관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충서의 유교 덕목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혈구지도(絜矩之道)'는 공동체내 관계형성에 있어서 내 마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타인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상호관계의 행위준칙으로 협력적 참여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이며, '화(和)'는 공동체에 신뢰와 규범의 질서를 형성하는 덕목이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내 자원배분의 형평성은 구성원들이 균형의 조화로움을 추구할 때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교적 실천(實踐)차원의 덕목이 지역복지현장에 주는 시사점이다. '효(孝)'는 부모 섬김만이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를 포괄하는 가족 규범으로 기능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효가 가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사회로 확대되어 간다는 점이다. 진정한 효는 일방적이고 집권적인 통제중심의 질서규범이 아니며, 쌍방향적이고 자치적인 자율중심의 공동체 규범으로 인식된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노약

자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는 지역공동체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간 연동이 작동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효'는 '돌봄'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가 돌봄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효'의 덕목을 재 개념화함으로써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내면화되어 모두가 공유하는 규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禮)'는 일종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일탈적 행위를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절제되지 않은 개인의 욕망은 공동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트린다. 지역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사건사고 대부분은 개인의 욕망을 절제 또는 통제하지 못함에 원인이 있다. 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가치와 규범의 총체이며,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형식과 절차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관계 구조는 쌍방적·개방적·협동적이며, 의사결정과 운용과정의 형식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때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교관점이 지역복지 정책연구에 주는 시사점이다.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응양상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유교공동체의 이념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들은 지역복지 정책차원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어떤 지역이 얼마나 살만할 좋은 곳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이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운동 등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측면에 유교의 관점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마을 만들기"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활발한 담론과 재조명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 사회자본이 약화되고, 이기적 경쟁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호부조 방식에 공감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결성되고 있다. 만약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이 유교적 관점과 덕목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지역공동체 구축에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관점은 현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상호 배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흩어진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관심을 갖더라도 그것은 단지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동양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용배, 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지역사회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89-215.
- 강창현, 2005,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73-94.
- 고재욱·남상호·이효걸·작술필 공저, 2003, 『현대사회와 동양사상』, 강원대학교출판부.
- 곽현근, 2013, "사회적 자본과 마을만들기", 『대전발전포럼』, 44: 118-134.

- 광주YMCA, 2006, 『주민의 손으로 좋은 동네를 만들자』, 광주: 새날출판사.
- 권오돈 역, 1990, 『禮記』, 서울: 홍신문화사.
- 금장태, 2000,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 김기원, 2002, “경제성장-친화적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9: 25-75.
- 김남선·김만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지』, 10(2): 1-30.
- 김수중·이동희·이봉재·한승완·권용혁, 2002,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 김우근, 2010,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으로서 시민미디어에 대한 고찰: 로컬 거버넌스, 사회자본,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9: 47-72.
- 김정수, 2006, 『문화행정론』, 서울: 집문당.
- 김진근, 1996, 『왕부지의 주역철학』, 서울: 예문서원.
- 김춘식, 2007, “사회자본이 마을수준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동구 송림2동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호, 2001, 『중국철학방법사』,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 류승일, 2011,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복지동향』, 147: 12-16.
- 박세일, 2008, “왜 공동체 자유주의인가?”, <http://blog.never.com/libertarian>.
- 박종관, 2010,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공공행정연구』, 11(2): 113-133.
- 박종민, 2012, “복지공동체 실현과 ‘복지마을만들기’의 가능성”, 『광주연구』, 18(3): 21-36.
- 박희봉, 2009, 『사회자본』, 서울: 조명문화사.
- 성백효 역, 1992a, 『中庸』, 朱熹, 傳統文化硏究會.
- _____, 1992b, 『大學』, 朱熹, 傳統文化硏究會.
- _____, 1993, 『論語』, 孔子, 傳統文化硏究會.
- 송 북, 2003, 『동양적 가치관 무엇인가』, 서울: 지식마당.
- 안우환, 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정수, 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4): 222-245.
- 원영희, 2007,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강원광장』, 75: 10-18.
- 유정기, 1985, 『四書三經』, 서울: 학력개발사.
- 이광모, 2006, “성찰적 행정의 변증법적 관점: 『주역』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1): 1-28.
- _____, 2009, “행정상황과 『주역』 ‘괘(卦)’의 상징성: ‘괘(卦)’의 관계구조와 바람직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5: 257-283.
- _____, 2010, “조선기 향촌사회 복지공동체의 사회자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한국행정학보』, 45(3): 203-226.
- 이상옥 역, 2003, 『禮記』, 서울: 명문당.
- 이영찬, 2001, 『유교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 이인재, 2005,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도시와 빈곤』, 73: 95-123.
- 이영철, 1998, “한국지역사회복지 공동체의 전략”, 『지역사회복지운동』, 6: 93-131.
- 이중수, 2007, 『살기좋은 지역개념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연구보고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 _____, 2009,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 이준영, 2007,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워크샵 자료집』: 3-43.
- 이진우, 1999, “유교적 공동체주의”, 『이 땅에서 철학하기』, 우리사상연구소, 2: 291-329.
- 이택룡·노무지·권정호·조현순, 2007, 『지역사회복지론』, 파주: 양서원.
- 이희경, 2012,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참여에 관한 연구”, 『공공행정연구』, 13(1): 213-242.
- 임동석 역, 2009, 『孝經』, 서울: 동서문화사.
- 장순희·이광모, 2005, “능동적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 주역의 세계관과 ‘9덕괘’의 해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3(3): 97-119.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5-34.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6(1): 113-146.
- 정연택, 2003, “사회정책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회적 자본: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14: 299-322.
- 주성수, 2008, “사회적 경제와 NPO, 제3섹터: 차이와 유사성”,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제38차 시민사회 연구회 발표문.
- 지은구, 2006, “지역사회와 역량강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7-286.
- 최문형, 2002, “율곡향약의 현대적 조명: 공동체주의와 관련하여”, 『동양철학연구』, 30: 27-52.
- 최종혁·이연·이은희·안태숙, 2010, “지역사회복지실천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지표 개발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한상미, 2007a,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사회복지연구』, 33: 237-272.
- _____, 2007b,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사회복지정책』, 31: 211-237.
- 홍경준, 2001, “빈곤에 대한 또 다른 탐색: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9: 165-192.
- _____, 2004, “복지사회와 사회자본: 한국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자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새공동체건설 통합 컨퍼런스 자료집』: 130-148.
- 홍승표, 1999, “유가의 예사상과 규범적 질서의 문제”, 『동양사회사상』, 2: 103-126.
- 홍현미라, 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관점 적용”,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ker, W., 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589-625.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Richardson, J. G., New York: Greenwood.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tructure of Social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Aldine de Gruyter, New York: Hawthorn.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Koiman, J., 1994,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Calif: Thousand Oaks.
- Lewicki, R., and Bunker, B., 1996, “Developing and maintaining trust in work organization”, 114-139, in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Kramer, R. M., and

- Tyler, T. R., London: Sage Publications.
- Lin, N., 2000, *Social Capital: A Theory and Status and Action*,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hapiet, J.,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in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ited by Eric L. L.,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hodes, R. A. 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Uphoff, N., 1999, "Demonstrated benefits from social capital: The productivity of farmer organization in Gal Oya, Sri Lanka", *World Development*, 21(4): 607-622.

A Study on the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ies

-Focusing on Implication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Lee, Kwangmo
(Songho Colleg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pistemic principles and practical virtue items in Confucism about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a community. First, I have reviewed the basic perspective of Confucism utilizing holistic point of view,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Yum-Yang, and human relationship in terms of role harmony,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Si-Wi. I have then explored several items, some of which are Jung and Hwa as an internal value criterion, Ui and Ye as an external one.

Analyzing other items such as In and Deok as directional items, Chung-Seo and Hyeol-ku-ji-do as epistemic items and Hyo and Ye as practical ones, I have found out that all of them, mentioned above functioned as factors of social capital in a community.

Therefore, we emphasize that Confucian epistemic principles and practical virtue items can not only function as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in modern communities but have usefu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in modern community welfare.

Key words: communities, social capital, Confucian epistemic principle, practical virtue items, Chung-Seo, Ye

[논문 접수일 : 14. 04. 01, 심사일 : 14. 04. 18, 게재 확정일 : 14. 05. 12]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일본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사회학부 및 사회학연구과 교수. 주요 관심 영역으로 그룹워크 전문기술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들 수 있고,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최근에는 사회복지 원조기술, 사회복지사상에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E-mail : ykuroki@mail.doshisha.ac.jp

이광모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최근 주요논문과 저서로 “조선시대 흡연문화의 형성과정 연구: 국가권력의 역할을 중심으로”(『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1(1), 201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효(爻)’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45(3), 2011),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한국공공관리학보』, 24(3), 2010 공저), 『장애인복지정책론』, (이야기담,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돌봄/죽음 등임.

E-mail: lkm@songho.ac.kr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한국가족복지학』, 42, 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사회복지연구』, 44(2), 2013, 공저),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한국가족복지학』, 40, 2013, 공저),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 공저),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재미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2), 2010, 공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용 비모수통계』, (집문당, 2007),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5,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강점관점 실천, 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등임.

E-mail: myum@skku.edu

송민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 주요 논문으로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공저)가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학교폭력과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 질적 연구임.

E-mail: buta79@naver.com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사회적기업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경향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 (1), 2013, 공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4), 2012) 공저,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4 (3), 2012, 공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 지역 사회복지, 사회적기업임.

E-mail: sangmicho@ewha.ac.kr

김진숙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 최근의 주요논문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전략”(『KBR』, 18 (2), 2014, 공저), “사회적기업 정책 특성 비교분석 연구”(『사회복지정책학회보』, 38 (2), 2011) 공저, “공공부문 부패수준 개선국가와 우리나라 부패방지 정책 특성 비교분석”(『한국부패학회보』, 15 (2), 2010,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행정부패, 사회적기업, CSR, 보건의료정책임.

E-mail: philiakjs@gmail.com